



소비자신뢰도 및 주택가격 지표 개선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노동시장과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도 개선으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

- 9월 25일 컨퍼런스보드는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8월 61.3에 비해 9.0 포인트 상승한 70.3을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, 이는 정상적인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90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이나 2012년 2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임.
- 일자리가 풍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8월 7.2%에서 8.3%로 상승하고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응답자가 40.6%에서 39.9%로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개선되었으며,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신뢰도 지수도 8월 46.5에서 50.2로 상승함.
- 2012년 이후 소비자 신뢰지수는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향후 민간소비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됨.

■ 7월 S&P/케이스실러 지수도 전월대비 1.6% 상승하고 대도시 주택가격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택시장 개선 추세를 이어감.

- 미국 내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7월 S&P/케이스실러 지수는 전월대비 1.6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여름철 주택매매가 활발하였기 때문으로 주택가격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
- S&P의 David Blitzer는 최근 단독주택 착공건수와 기존주택 판매가 증가하고 주택 매물과 주택 압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주택시장 개선의 증거라고 설명함.
- 그러나 주택시장 전문가 Bill McBride는 미국의 주택시장이 봄과 여름철에 호황을 나타내는 계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4개월간 지속된 주택가격 상승흐름이 주택시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함.

(LA Times 등, 9/26)